





#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높이 부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 위대한 당과 함께 이 세상 끝까지

지난 8월 9일 《로동신문》에는 우리의 정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광화국가 학창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 주신 친필서 한 편 함께 가사와 악보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편집되어 만사람에게 키다만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원천히 가로막으려 극악 무도한 《제재 결의》를 조작한데 이어 광화국에 대한 불분별한 《전쟁불사》 광성을 으스스 풀어놓는 미국들에게 양보하지 않은 민족들에게 양보하지 않은 민족이 보내는 멍석의 용맹들이 지면을 한가로 죄를 속에 험하게 안겨 오는 우리 원수님의 천결글발,

우리 국가의 자존과 운명을 걸고 반만년민족사의 대경사, 특대사진들을 산아오실 때마다 역사적인 문건들에 날기시민 활달한 철체로 우리 원수님께선 어찌하여 그렇듯 뜨거운 적정을 담아 한자한자 썬나가시였던가.

그날 우리는 무엇을 더 뚜렷히 보여드릴까 세제는 또 무엇을 절감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당의 맘과 사랑,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기본원료가 있다.》

지나온 몇해사이에만도 우리 당에 드리는 흠토의 노래들은 수많이 데여났고 그때마다 우리 인민은 행복에 겨워 목에 부르고 하였다.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내 심장의 목소리》,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우리에게 위대한 당시 있네》, 《광광드림니다 조선으로동당이여》...

지금 이 땅에선 세상사람들이 노래에 대하여서는 생각할수 없을 정도로 즐겁던 시간이 혼란이다.

수명과 선사, 평도자와 인민이 절대적인 믿음을 주고받을 때 그보다 더 풍랑한 단절은 없으며 그러한 단절을 가진 혁명을 융통으로 되게 하고 쾌적 않은 나라도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행성이 물체로 조선 대 미국의 대결장으로 화한듯이고 흐르는 세월마저 역사적 사변을 기다려 초침소리를 울리는 것만 같은 이 시각에 조선인민의 한없이 숭엄한 마음을 끌어구나처럼 엮어 우리 혁명군대에 예술인들이 어머니당에 삶과 드린 감사의 노래, 축원의 노래, 행세의 노래!

누구는 이것을 두고 조선에서 만날 있는 최인한 광경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흙막무도한 원두들마저도 조선에 펼쳐진 놀라운 현실앞에 눈살이 뛰 절혀질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은 시대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이 불멸의 찬가와 더불어 하나의

엄숙한 전리를 이 평의 군대와

인민에게, 세계의 민심에 또다시 힘 있게 세울거였다.

우리 인민에 대한 당시의 믿음!

우리 당시에 대한 인민의 믿음!

제국주의의 편협세력과 단호히 맞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지금이다 더 신실답지

는 말, 불굴의 용맹을 북돋아주는 말이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믿음을 인은 순간부터 그 투보로써 뛰어수 없는 불가항력의 힘을 지니게 된다. 믿음, 그것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집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국가에 있어서도 더없이 퀴중한 것이다. 평범한 사람도 영웅으로 되게 하고 쾌적 않은 나라도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수명과 선사, 평도자와 인민이 절대적인 믿음을 주고받을 때 그보다 더 풍랑한 단절은 없으며 그러한 단절을 가진 혁명을 융통으로 되게 하고 쾌적 않은 나라도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행성이 물체로 조선 대 미국의 대결장으로 화한듯이고 흐르는 세월마저 역사적 사변을 기다려 초침소리를 울리는 것만 같은 이 시각에 조선인민의 한없이 숭엄한 마음을 끌어구나처럼 엮어 우리 혁명군대에 예술인들이 어머니당에 삶과 드린 감사의 노래, 축원의 노래, 행세의 노래!

누구는 이것을 두고 조선에서 만날 있는 최인한 광경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흙막무도한 원두들마저도 조선에 펼쳐진 놀라운 현실앞에 눈살이 뛰 절혀질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은 시대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이 불멸의 찬가와 더불어 하나의

엄숙한 전리를 이 평의 군대와

인민에게, 세계의 민심에 또다시 힘 있게 세울거였다.

우리 인민에 대한 당시의 믿음!

우리 당시에 대한 인민의 믿음!

제국주의의 편협세력과 단호히 맞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지금이다 더 신실답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정생고고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이었으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한다고 드립없는 의지를 머역하시면 우리 원수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혁명적인 노래는 사람들에게 힘과 열정을 안겨주며 그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길을 드리우는 위력한 수단으로 됩니다.》

문학에 출부문의 그 어느 창작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퍼지고있는 지금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속도 무한한 걱정으로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혁명적인 노래는 사람들에게 힘과 열정을 안겨주며 그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길을 드리우는 위력한 수단으로 됩니다.》

문학에 출부문의 그 어느 창작

창조단위에

가보아도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이 번 예술

공화국가 합창단의 뺨찌 산나팔

수들이 회성포의 희성포도 같은

그때에 가서 인민이며, 우리 후

대들에게 뚜렷이 이야기해주자.

최후의 전사전을 앞두고 우

우리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

노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이제는 힘과 열정으로 지

지하고 밤낮으로 원대한 조선인

민에게 숭고한 경의와 감사를

선물하고자 원수님 절대로 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숭리를 확신한다.

전철한 철과 함께 내다보는

된다.

세기기 이어온 단체인민대결

전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에

가서, 두번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의 종합승리가 이룩되는

그때에 가서 원수님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인민의

총명하고 활기찬 사의를

나타내면서 미리 예상해 놓았던 그날에

우리가 드리는 노래는

# 불라는 적개심 하늘에 달았다, 미제와 끝까지 결판을 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끊친 일심 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만리마을구자대회를 자랑으로써 적성파로 빛내이기 위해 증산루쟁, 창조루쟁, 둘격루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하고 자리자강의 위력을 미국을 비롯한 악세세력들의 제재 핵동에 투구명을 내 의지로 징장을 불태우고 있다.

통강화 강석광산, 지배인 전영근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략적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절경하고 불법무법의 유엔 상임고문리사회회『제재결의』를 끌끌내 조작해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방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평산에서는 하루동안 원주민들의 광통에 맞구멍을 내는 수백명의 종업원들이 인민군

대에 복더할것을 탄원해나섰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일간 명령을 내려시면서 계정신을 일고 해법비는 악의 무리를 풀어버릴 열기로 풍기는 가공현장들에서는 헨일 죽망찌꺼릴 비상한 각오로 헌일 높은 생활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후승리는 만드시 우리의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에 넘쳐 드

전체 종업원들은 지금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험한 망상에 사로잡혀온 적세세력들의 아성을 풍체로 치중찌꺼릴 블리는 결의에 넘쳐있다.

총평 국정부성명에 접한 개천

수령결사옹위정신, 유탄자록정신을 인정하고 험한 무쇠마치로 험한 망상에 솟아오른 심장의 쇠를 펼쳐풀고 있다. 지구상 그 어느곳에 숨어있든 우리 혁명의 수녀부와 사회주의 노동을 노리고 도발을 저지르는 놈들이 있다면 한놈이 그대로 죽임기 가 되고 화야이 되어서라도 악의 고지름을 치켜든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우정본래로 『매봉신』 구두생신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왔다.

미국놈들이 갑히 우리 국가를 겨냥한 그 무슨 군사적선박에 떠여탈린다면 우리 천만군민은 쌓이고 쌓인 원한과 증오를 총폭발시켜 정의의 해보금으로 푸는 원쑤들을 모아들이 일당구나겠다는 것을 결의한다.

원산군부동장 김기직장 회장장 김원희는 지난 7월에 만하여 우의 직장동업원들은 생산현장에서 대국간판도로제트『화성-14』형시험발사성공 소식을 두차례나 가슴시원히 들으며 웅성자 떠나갈듯 만세를 불렀었다. 그런데 미국놈들은 파에 들어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 2371호라는 것을 조작해냈다고 하니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파연 그마파 제제로 7월의 만세소리를 짓누를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을 비롯한 악세세력들이 제재분시장을 또 빼내겠다 같은데 이번에는 이에 혁도 없이 불태워버려야 할것 같다. 바로 그에서 우리는 혁명의 나날 조국의 고지름을 치켜든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우정본래로 『매봉신』 구두생신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왔다.

이번 『제재결의』로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것이라고 귀머거리 제 마음에 있는 소리 하듯 웨처드 트럼프를 비롯한 온갖 것들에게 조선사람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어떤것인가를 똑바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천택배하여 자력자강의 중심으로 대시장에 진입해나가겠다는 것을 결의한다. 본사기자



-오석 산화강석광산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촬영



-평양차량수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촬영

##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 패전의 수치와 수십년에 걸친 대조선적 대시정책의 총파괴로 국부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의 밤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각계층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국가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 연구사 박사로 혼준은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조작된 『제재결의』에 의해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우리 인민이 언제 한번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더욱 격차를 좁힐수록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다. 그래서는 보명총으로 학부기를 거친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은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미국

#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노래 『사회주의 전진가』를 심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상실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제국주의를 뛰어난 운명과 반혁명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전진하는 혁명위업입니다.』

넓강도 미제와 그에 추종한 비열한들이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전제미이그란의 악랄한 『제재 결의』를 또다시 꾸며냈다는 소식에 절한 천만군민의 분노가 화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족하게 침해한 적들의 도발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선 이 시각 우리가 갈길은 자력자강의 길이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사회주의 한길뿐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혀주는 노래가 울려져졌다.

그 누가 뛰어고 하든, 어떤 풍물이 불어오자 저마다 선택한 길로 끌려와 끝까지 나아갈 우리 인민의 신념을 담은 노래 『사회주의 전진가』.

산악이 막으면 폭풍처럼 넘고 격랑이 막으면 물처럼 넘고 격랑이 막으면 물처럼 넘는 우리를 이룩해 가는 우리를

누가 막으랴? 천진 또 천진 신심트높이 전진 또 전진 용기백배해 우리 당 이끄는 사회주의는 힘차게 전진해간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은 새찬 직성으로 높뛰고 있다.

고정 창영 송소대의 광부들처럼, 평생

신화의 창조자처럼 천만군민 모두가 원쑤들의 대칼통을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쳐갈기며 창조의 영웅, 만리마기수로 삶며 두정하나가리는 시대의 주도적 강정을 소리높이 구가한 바로 여기에 노래가 가지는 중요한 사상에 술적특정이 있다.

사회주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정다운 부름은 없다. 그것은 우리 온 몸과 미래를 소중히 지켜주고 보살피주는 삶의 전부와도 같은 말이다.

백두산질세워인들의 품속에서 대대로 우리가 가슴가득히 간직한 공기가 여기에 있고 오늘도 좋지만 내일에는 천자마 낙까지도 더욱 꽂며날 우리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잘 살기 위해 미처남퀴는 날강도 미제는 이번 제재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충격을 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가소로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을 꿈꾸는 놀들의 추대가 어려울뿐더러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牒비는 원쑤들의 허세가 없기 그지 없다.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실장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자리잡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신념입니다.

파연 저물이 치운한 제재따위로 소중하고 굳건한 우리 온몸의 유탄, 인민의 영원한 삶의 머리를 허물어버릴수 있단 말이야.

이 노래를 삶과 두정의 전군가로 더욱 높이 부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당

제 나아갈 필승의 기상이 노래의 구절구

질에 빼어치고있다.

일심의 힘으로 나가는 우리 제침을 밀고서 강해진 우리 뻗쳐온 승리를 계속 이어서 더 큰 승리 안아오리라.

노래 『사회주의 전진가』는 단순히 가사와 선율의 합집으로 이루어진 가요가 아니라 럭시의 정리부모, 순간간의 삶의 요구로부터 나온 우리 인민의 심장의 훠이면서 불꽃의 의지의 선언이다.

수십만간 지속된 가장 혹독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막고 루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는 천리마가 높이 날아올랐고 번영의 날개들을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남들같으면 알렉산드로 캐리어렸을 줄증연한 우려는 눈부신 비약의 한길로만 풀을 헤쳐온 제재를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잘 살기 위해 미처남퀴는 날강도 미제는 이번 제재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충격을 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가소로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을 꿈꾸는 놀들의 추대가 어려울뿐더러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牒비는 원쑤들의 허세가 없기 그지 없다.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실장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자리잡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신념입니다.

파연 저물이 치운한 제재따위로 소중하고 굳건한 우리 온몸의 유탄, 인민의 영원한 삶의 머리를 허물어버릴수 있단 말이야.

이 노래를 삶과 두정의 전군가로 더욱 높이 부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당

제 나아갈 필승의 기상이 노래의 구절구

질에 빼어치고있다.

노래 『사회주의 전진가』는 단순히 가사와 선율의 합집으로 이루어진 가요가 아니라 럭시의 정리부모, 순간간의 삶의 요구로부터 나온 우리 인민의 심장의 훠이면서 불꽃의 의지의 선언이다.

수십만간 지속된 가장 혹독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막고 루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는 천리마가 높이 날아올랐고 번영의 날개들을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남들같으면 알렉산드로 캐리어렸을 줄증연한 우려는 눈부신 비약의 한길로만 풀을 헤쳐온 제재를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잘 살기 위해 미처남퀴는 날강도 미제는 이번 제재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충격을 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가소로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을 꿈꾸는 놀들의 추대가 어려울뿐더러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牒비는 원쑤들의 허세가 없기 그지 없다.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실장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자리잡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신념입니다.

파연 저물이 치운한 제재따위로 소중하고 굳건한 우리 온몸의 유탄, 인민의 영원한 삶의 머리를 허물어버릴수 있단 말이야.

이 노래를 삶과 두정의 전군가로 더욱 높이 부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당

제 나아갈 필승의 기상이 노래의 구절구

질에 빼어치고있다.

노래 『사회주의 전진가』는 단순히 가사와 선율의 합집으로 이루어진 가요가 아니라 럭시의 정리부모, 순간간의 삶의 요구로부터 나온 우리 인민의 심장의 훠이면서 불꽃의 의지의 선언이다.

수십만간 지속된 가장 혹독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막고 루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는 천리마가 높이 날아올랐고 번영의 날개들을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남들같으면 알렉산드로 캐리어렸을 줄증연한 우려는 눈부신 비약의 한길로만 풀을 헤쳐온 제재를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잘 살기 위해 미처남퀴는 날강도 미제는 이번 제재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충격을 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가소로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을 꿈꾸는 놀들의 추대가 어려울뿐더러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牒비는 원쑤들의 허세가 없기 그지 없다.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실장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자리잡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신념입니다.

파연 저물이 치운한 제재따위로 소중하고 굳건한 우리 온몸의 유탄, 인민의 영원한 삶의 머리를 허물어버릴수 있단 말이야.

이 노래를 삶과 두정의 전군가로 더욱 높이 부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당

제 나아갈 필승의 기상이 노래의 구절구

질에 빼어치고있다.

노래 『사회주의 전진가』는 단순히 가사와 선율의 합집으로 이루어진 가요가 아니라 럭시의 정리부모, 순간간의 삶의 요구로부터 나온 우리 인민의 심장의 훠이면서 불꽃의 의지의 선언이다.

수십만간 지속된 가장 혹독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막고 루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는 천리마가 높이 날아올랐고 번영의 날개들을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남들같으면 알렉산드로 캐리어렸을 줄증연한 우려는 눈부신 비약의 한길로만 풀을 헤쳐온 제재를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잘 살기 위해 미처남퀴는 날강도 미제는 이번 제재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충격을 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가소로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을 꿈꾸는 놀들의 추대가 어려울뿐더러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牒비는 원쑤들의 허세가 없기 그지 없다.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실장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자리잡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신념입니다.

파연 저물이 치운한 제재따위로 소중하고 굳건한 우리 온몸의 유탄, 인민의 영원한 삶의 머리를 허물어버릴수 있단 말이야.

이 노래를 삶과 두정의 전군가로 더욱 높이 부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당

제 나아갈 필승의 기상이 노래의 구절구

질에 빼어치고있다.

노래 『사회주의 전진가』는 단순히 가사와 선율의 합집으로 이루어진 가요가 아니라 럭시의 정리부모, 순간간의 삶의 요구로부터 나온 우리 인민의 심장의 훠이면서 불꽃의 의지의 선언이다.

수십만간 지속된 가장 혹독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막고 루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는 천리마가 높이 날아올랐고 번영의 날개들을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남들같으면 알렉산드로 캐리어렸을 줄증연한 우려는 눈부신 비약의 한길로만 풀을 헤쳐온 제재를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잘 살기 위해 미처남퀴는 날강도 미제는 이번 제재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충격을 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가소로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을 꿈꾸는 놀들의 추대가 어려울뿐더러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牒비는 원쑤들의 허세가 없기 그지 없다.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실장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자리잡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신념입니다.

파연 저물이 치운한 제재따위로 소중하고 굳건한 우리 온몸의 유탄, 인민의 영원한 삶의 머리를 허물어버릴수 있단 말이야.

이 노래를 삶과 두정의 전군가로 더욱 높이 부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당

제 나아갈 필승의 기상이 노래의 구절구

질에 빼어치고있다.

노래 『사회주의 전진가』는 단순히 가사와 선율의 합집으로 이루어진 가요가 아니라 럭시의 정리부모, 순간간의 삶의 요구로부터 나온 우리 인민의 심장의 훠이면서 불꽃의 의지의 선언이다.

수십만간 지속된 가장 혹독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막고 루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는 천리마가 높이 날아올랐고 번영의 날개들을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남들같으면 알렉산드로 캐리어렸을 줄증연한 우려는 눈부신 비약의 한길로만 풀을 헤쳐온 제재를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잘 살기 위해 미처남퀴는 날강도 미제는 이번 제재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충격을 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가소로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을 꿈꾸는 놀들의 추대가 어려울뿐더러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牒비는 원쑤들의 허세가 없기 그지 없다.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실장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자리잡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신념입니다.

파연 저물이 치운한 제재따위로 소중하고 굳건한 우리 온몸의 유탄, 인민의 영원한 삶의 머리를 허물어버릴수 있단 말이야.

이 노래를 삶과 두정의 전군가로 더욱 높이 부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당

제 나아갈 필승의 기상이 노래의 구절구

질에 빼어치고있다.

노래 『사회주의 전진가』는 단순히 가사와 선율의 합집으로 이루어진 가요가 아니라 럭시의 정리부모, 순간간의 삶의 요구로부터 나온 우리 인민의 심장의 훠이면서 불꽃의 의지의 선언이다.

수십만간 지속된 가장 혹독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막고 루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는 천리마가 높이 날아올랐고 번영의 날개들을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남들같으면 알렉산드로 캐리어렸을 줄증연한 우려는 눈부신 비약의 한길로만 풀을 헤쳐온 제재를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울려퍼져고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잘 살기 위해 미처남퀴는 날강도 미제는 이번 제재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충격을 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가소로울 일이 어디에 있는가?

